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9.06.10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KOSPI	1.6	-1.7	-3.0	0.9	12.1	12.1	0.9	0.9	2.3	2.3	<p>(%)</p> <p>SK텔레콤 KT LG유플러스</p> <p>SKT 40.6% (-0.1%p WoW, Flat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9.3% (+0.1%p WoW, +0.7%p MoM)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소폭 하락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소폭 상승</p>
통신업종	1.1	-3.9	-0.4	-12.4	11.7	11.7	0.8	0.8	3.8	3.8	
SK텔레콤	2.0	-3.2	1.2	-9.9	12.6	9.6	0.9	0.8	4.1	4.2	
KT	-0.5	0.7	1.6	-6.9	9.9	8.7	0.5	0.5	3.9	4.1	
LG유플러스	0.0	-8.4	-4.1	-19.6	11.8	10.6	0.9	0.8	2.9	3.0	
AT&T	6.2	6.9	8.4	7.8	9.1	9.0	1.3	1.3	6.3	6.4	
Verizon	5.3	1.3	1.3	-0.8	12.0	11.8	3.9	3.3	4.2	4.3	
T-Mobile	4.9	3.7	9.0	17.3	19.3	16.3	2.3	2.1	0.0	2.4	
Sprint	3.3	18.7	16.4	18.1	97.3	N/A	1.0	1.1	0.0	0.0	
NTT Docomo	0.9	4.5	0.8	-2.4	12.7	14.1	1.6	1.6	4.4	4.7	
KDDI	-0.7	8.6	6.2	4.9	10.9	10.7	1.6	1.5	3.6	4.0	
Softbank	-3.8	-14.6	-4.3	10.5	8.6	8.1	1.6	1.3	0.4	0.9	
China Mobile	0.5	-3.2	-13.4	-9.2	10.8	10.5	1.1	1.1	4.8	4.8	
China Unicom	0.5	-4.9	-8.2	-4.0	16.5	12.1	0.7	0.7	2.4	3.3	
China Telecom	2.8	-1.0	-1.5	1.3	12.9	12.1	0.8	0.8	3.2	3.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6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5%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전반적인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어주적 성격을 지닌 통신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저조 중국 정부는 올해 말~ 내년 초 예정이던 5G 상용화를 이번 7~8월로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결정 국내 기관은 SK텔레콤과 KT 순매수,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도,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10일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 여부 최종 결정 국회 파행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지연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관련 논의도 함께 미뤄질 전망 각국의 5G 상용화 경쟁과 화웨이 보이콧에 따른 삼성전자 매출 성장에 따라 통신장비주 수혜 지속 이르면 2Q19부터 무선 ARPU 반등이 가능한 통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5	6	7	8
9	10 민주당, 단독국회 소집 여부 최종 결정	11	12	13	14	15

3 주간 뉴스

▶ 中, 서둘러 통신사 5G 영업허가... "올해 5G 상용화 원년" 선언 (조선일보)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3대 통신사와 차이나브로드캐스팅 등 4곳에 5G 영업 허가증 발급
- 일반 고객을 상대로 빠르면 7~8월쯤 5G 전용 요금제를 내놓고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
- 올해까지 5G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는 기존 계획을 앞당긴 상황
- ⇒ 현지 매체에서는 올해만 약 5조4천억원을 들여 7~8만개의 기지국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
-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를 보호하고, 5G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조치

▶ 靑 "화웨이 써도 한미 안보에 영향 없다... 軍 통신선은 분리" (동아일보)

-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5G 망은 화웨이 비중이 10% 미만이며, 군사 망과 분리되어있다고 설명
-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발언
- 동시에 청와대는 국내 장비 업체를 통해 반화웨이 전략에 간접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표명
- ⇒ 정부가 앞선 미국의 요구대로 국내 기업에 화웨이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
- ⇒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웨이 거래 중단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국내 장비 업체를 지원할 가능성

▶ LG유플러스, 전자결제(PG) 사업부 매각 검토 중 (디지털타임스)

- LGU+는 PG 사업을 담당하는 E-Biz 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해 딜로이트안진을 주관사로 선정
- 예상 매각 가격은 4,000억 원 수준, 이르면 이달 말 인수후보들에게 투자안내문을 보낼 예정
- 네이버 등 '자체 결제시스템'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원인. 시너지도 부족한 상황
- ⇒ LGU+은 PG 사업부를 파는 것을 검토 중으로, 실제 매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 ⇒ LGU+는 시장 2위 업체로, 해당 사업부 인수 후보는 KG이니시스 등 경쟁 업체들이 거론

▶ SKT, 美 방송사와 합작회사 이달 내 출범 (ZDNet Korea)

- SKT와 미국 방송사 싱클레어가 함께 만든 합작회사는 이달 중 워싱턴DC에 사무소를 열 계획
- 2020년 까지 싱클레어가 보유한 191개 방송사 중 32개 방송사에 미디어 솔루션을 탑재할 방침
- 합작회사에 각각 1천650만 달러씩 투자해 공동 경영. 사업이 확장될 시 수익 재투자도 고려 중
- ⇒ 제공되는 솔루션 'ATSC 3.0'은 차량 내에서 고화질, 양방향 방송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경쟁력
- ⇒ 한편, '폭+옥수' 합병법안에 이태현 대표이사 사임되는 등 SKT의 미디어 사업 확장 가속

▶ 이통사 5G로 워라벨 실현, '스마트오피스' 사업 박차 (이투데이)

- 근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SKT는 삼성전자, 시스코와 5G 스마트오피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SKT는 5G 인프라, 클라우드, 삼성전자는 단말 및 솔루션, 시스코는 보안 솔루션 등 제공
- LGU+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문서 관리, 정보 보안, 근무시간 관리 등 스마트오피스 솔루션 출시
- ⇒ 이통사들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오피스 등 5G를 활용한 B2B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주력
- ⇒ 5G의 주요 수요가 B2B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주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

▶ LG유플러스, 5G용 AR콘텐츠에 100억 투자.. 업계 최대 (이데일리)

- LGU+는 연말까지 AR콘텐츠를 1,500편 제작, 스튜디오 두 곳 개설 하는 등 100억원 투자 계획
- 美 8i사와 독점 제휴. 또한 VFX업체인 텍스터, 5개의 전문 콘텐츠 기획사와도 업무 협력 방침
- 자체 제작 콘텐츠를 늘리고, 전략적 제휴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
- ⇒ 제작하는 AR 콘텐츠는 K-POP에서 시작해 홈트레이닝, 키즈, 스포츠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
- ⇒ AR/VR이 5G 대표 적용 분야로 떠오르면서 미디어 및 광고 시장에도 관련 기회가 생겨날 전망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한국	SK텔레콤	255,000	17.4	14.9	15.5	1.1	1.2	1.3	1.7	4.2	4.4	5.9	5.6	6.9	8.6
	KT	28,200	6.2	20.2	20.6	1.1	1.2	0.6	0.7	4.1	4.3	2.5	2.4	5.5	6.0
	LG유플러스	14,150	5.2	10.5	10.9	0.7	0.7	0.4	0.5	2.3	2.4	3.4	3.2	7.6	8.1
미국	AT&T	32.5	237.1	183.2	183.7	37.4	38.4	25.3	26.0	60.2	60.6	7.2	7.2	12.2	11.9
	Verizon	57.2	236.7	131.8	133.3	31.0	31.8	19.7	20.2	48.2	49.2	7.7	7.6	33.8	29.4
	T-Mobile	77.0	65.8	45.4	49.1	5.8	6.6	3.3	3.8	12.8	13.6	8.3	7.8	11.5	12.1
	Sprint	7.1	29.0	33.4	33.0	2.7	1.7	0.3	-0.7	12.6	11.8	4.9	5.2	1.2	0.3
일본	NTT Docomo	2,519	77.7	43.2	42.8	9.0	8.0	6.2	5.5	13.7	12.9	5.4	5.9	12.6	11.2
	KDDI	2,770	60.3	46.5	47.4	9.2	9.4	5.6	5.7	14.4	14.9	5.0	4.9	15.5	14.5
	Softbank	9,864	100.4	86.2	90.2	16.5	12.3	10.8	11.0	27.6	25.9	7.8	8.5	14.6	14.9
중국	China Mobile	70.4	183.8	108.6	112.5	18.0	18.4	17.0	17.7	42.0	43.6	2.9	2.8	10.9	10.7
	China Unicom	8.4	32.8	43.5	46.3	2.2	3.0	2.0	2.7	13.4	14.3	2.5	2.4	4.3	5.7
	China Telecom	4.0	41.4	57.0	59.3	4.6	4.9	3.2	3.4	16.0	16.6	3.2	3.1	6.3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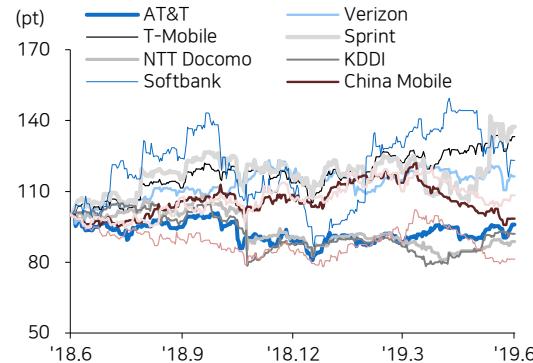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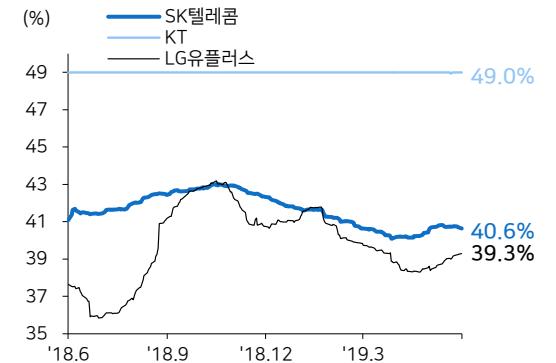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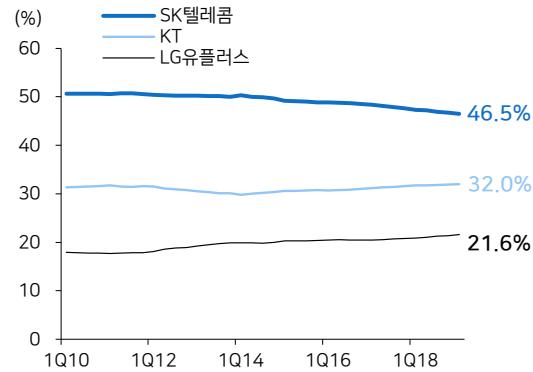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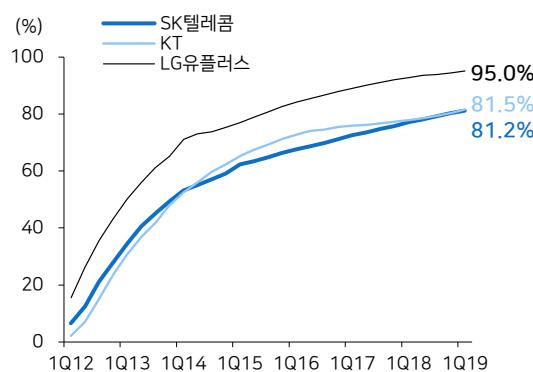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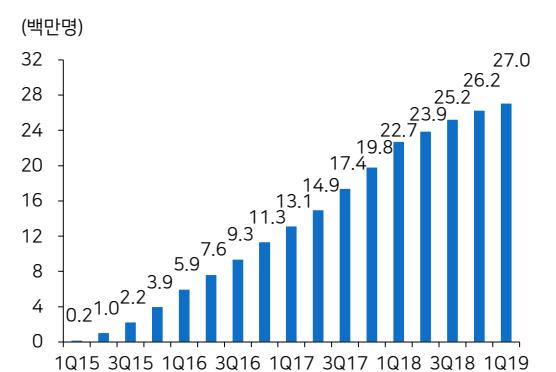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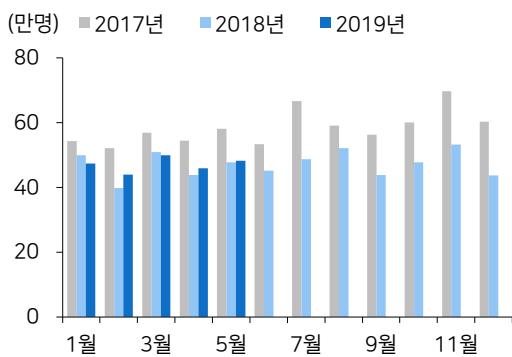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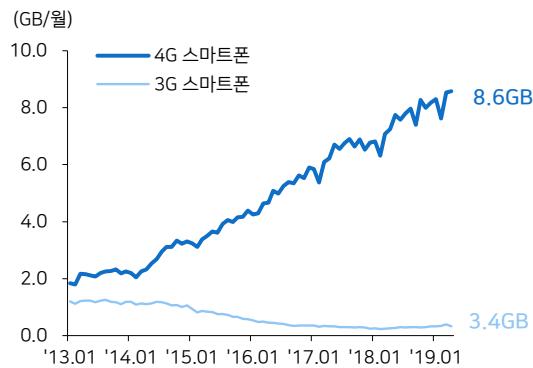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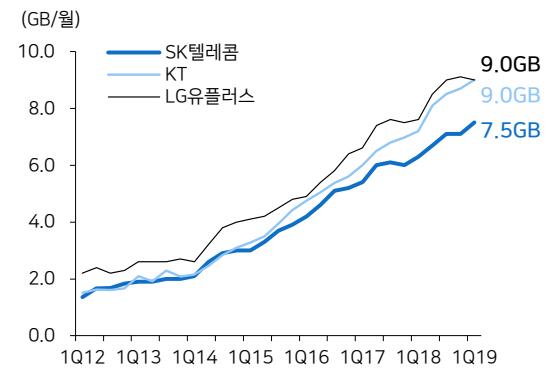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06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06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06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문경원)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